

# 외교 조현·통일 정동영... 11개 부처 장관후보 인선

### 李대통령, 새 정부 국정 운영 본격 드라이브 姜비서실장 “전문성·현장성 최우선으로 고려” 민주당 현역 의원 5명 기용... 초대 내각 윤곽

#### 이재명 정부 장관급 인선 현황

| 국방부 장관 후보자   | 통일부 장관 후보자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
| <br><b>안규백(64)</b><br>• 1961년 전북 고창 출생<br>• 성균관대 철학과<br>• 성균관대 대학원 무역학<br>• 제18·19·20·21·22대 국회의원<br>• 국회 국방위원장 | <br><b>정동영(72)</b><br>• 1953년 전북 순창 출생<br>• 서울대 국사학과<br>• 영국 웨일즈대 카디프대학원 언론정보학과<br>• 제15·16·18·20·22대 국회의원<br>• 노무현정부 통일부 장관   | <br><b>조현(68)</b><br>• 1957년 전북 김제 출생<br>• 연세대 정치외교학과<br>•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 국제관계학과<br>• 프랑스 파리정치대 대학원 국제정치학과<br>• 프랑스 툴루즈대 국제정치학 박사<br>• 외시 13회<br>• 외교부 제12차관<br>• 주유엔(UN) 대사 | <br><b>배경훈(49)</b><br>• 1976년 서울 출생<br>• 광운대 전자공학과<br>• 광운대 대학원 전자공학과 석사·박사<br>• 미국 컬럼비아사범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br>•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br>• LG AI연구원 원장 |
| 보훈부 장관 후보자   | 환경부 장관 후보자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
| <br><b>권오을(68)</b><br>• 1957년 경북 안동 출생<br>• 고려대 정치외교학과<br>• 고려대 정책대학원 경제학과<br>• 제15·16·17대 국회의원<br>• 국회 사무총장  | <br><b>김성환(60)</b><br>• 1965년 전남 여수 출생<br>• 연세대 법학과<br>• 연세대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방행정학과<br>• 제20·21·22대 국회의원<br>•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 <br><b>강선우(47)</b><br>• 1978년 대구 출생<br>• 이화여대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br>• 이화여대 대학원 소비자인간발달학과<br>•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br>• 미국 서우스다코타 주립대 교수<br>• 제21·22대 국회의원                  | <br><b>전재수(54)</b><br>• 1971년 경남 의령 출생<br>• 동국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br>• 동국대 대학원 정치학과<br>• 제20·21·22대 국회의원<br>•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 국무조정실장   |
| <br><b>한성숙(58)</b><br>• 1967년 경기 출생<br>•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br>•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br>• 네이버 고문                             | <br><b>김영훈(57)</b><br>• 1968년 부산 출생<br>• 동아대 축산학과<br>•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b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br>• 전국농수산업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br><b>송미령(58)</b><br>• 1967년 충남 논산 출생<br>•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br>• 서울대 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환경계획학 박사<br>• 농림축산식품부 장관<b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 <br><b>윤창철(58)</b><br>• 1967년 강원 원주 출생<br>• 서울대 외교학과<br>•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br>• 미국 아메리칸대 대학원 행정학과<br>• 행시 34회<br>•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br>•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12명을 지명하며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방부 장관 후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외교부 장관 후보에는 조현 전 유엔대표부 특명전권대사가 내정됐다. 통일부 장관 후보로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발탁됐다. 안규백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을 통해 군사 전문성을 쌓은 5선 의원으로 이 대 대통령은 안 후보자가 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선”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는 배경훈 LG AI(인공지능)연구원장이 지명됐다. 배 후보자는 AI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며 초거대 AI 상용화를 이끈 인물로, 강 비서실장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모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조현 전 대사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한-멕시코 FTA 협상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통상 전문가로 향후 다자 외교 강화 및 실용외교 추진에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로는 권오을 전 의원이 내정됐다. 권 후보자는 국민의힘 출신이지만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며 ‘통합형 인사’로 주목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송미령 현 장관이 유임됐다. 대통령실은 “송 장관은 새 정부 국정 철학에 공감하며 안정적 국정 수행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철 전 국무조정실 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는 한성숙

네이버 전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인사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장관 후보로 기용됐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안규백 의원을 포함해 정동영(통일부) △김성환(환경부) △강선우(여성가족부) △전재수(해양수산부) 의원 등 총 5명의 현역 민주당 의원이 장관 후보에 지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여당 의원들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기 위한 인사”라며 “정책 추진력과 정치력을 동시에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은 윤곽을 대부분 드러냈다.

김해원 기자 hjyang@skyedaily.com

## 李대통령 “중동 상황 위급... 전 부처 비상 대응 체계 가동”

### 유가 상승·물가 불안 대비 강조 “교민 보호·추경 탄력 조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

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번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서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

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안 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만 즉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 올드보이 vs 신진 주자... 野 당권 레이스 본격화

### 계파 갈등·혁신 충돌 예고 안철수·나경원·김문수 세 확장 한동훈·김용태 수싸움 나설 듯

국민의힘이 8월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당권 도전을 위한 지지 기반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혁신 없는 리턴 매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은 21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철수형은 듣고

싶어서라는 이름의 깜짝 개릴라 버스킹을 진행하며 시민들과 소통에 나섰다. 안 의원은 정치 계획부터 인공지능 산업의 미래·휴가 계획까지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시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그는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직접 소통하고 싶어 행사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서 깜짝 출현해 민심과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전직 의원 40여명과 오찬 회동을 가지는 등 당내 인맥과 지지 기반을 넓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당에서 추대 여론이 형성되면 가정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 혁신의 지를 재차 표명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청년층이 많은 서울 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당원 확대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대중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1일 진행한 방송은 이틀 만에 조회수 수십만 회를 기록하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최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를 거론하며 “넓고 포용적인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당내 변화와 통합의 필요성

을 역설했다. 야권에서는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 간 ‘리턴 매치’ 구도가 예상되지만 수도권과 충청권, 청년층을 기반으로 한 제3의 인물 등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내 기득권 정치와 계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얼굴이 당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민의힘은 7월 초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중순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대선 패자들의 리턴 매치와 신진 인물의 도전이 맞물린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혁신과 세대교체, 계파 갈등 해소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이할지 주목된다.

김해원 기자 hjyang@skyedaily.com

### 다시 새겨보는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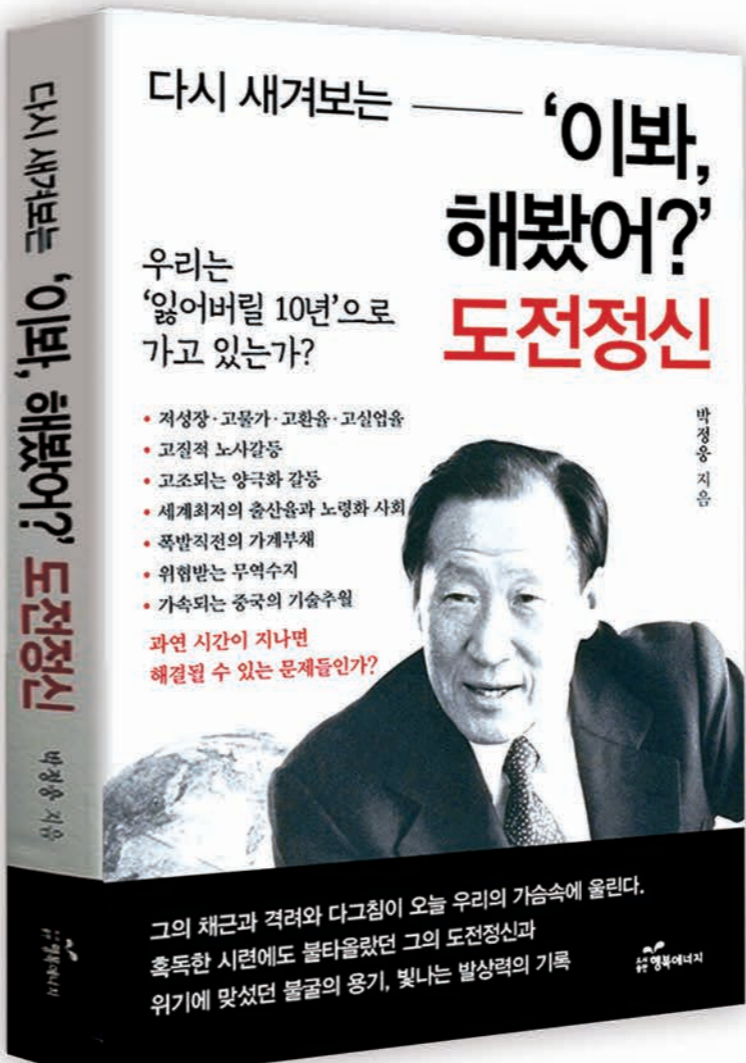
##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세계적 격동의 시기, 다시금 되돌아보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삶의 궤적

중동 건설시장 도전,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조선소 건설 도전, 현대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발자취를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뒤따라간다.

단순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의 위업을 좇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경련 간부로서 직접 보고 들은 정주영 회장의 생생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 속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도전정신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한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혁신과 성장을 가져왔던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 경영학의 태두 ‘피터 드러커’조차도 극찬했다고 알려진 그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금 영감과 용기를 심어 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박정웅 지음 | 348쪽 | 25,000원 | 행복에너지



다시 새겨보는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 저성장·고물가·고환율·고실업률
- 고질적 노사갈등
- 고조되는 양극화·갈등
- 세계최저의 출산율과 노령화 사회
- 폭발적 전의 가격부재
- 위협받는 무역수지
- 가속되는 중국의 기술추월

과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가?

그의 재근과 격려와 다그침이 오늘 우리의 가슴속에 울린다. 홀독한 시련에도 불타올랐던 그의 도전정신과 위기에 맞섰던 불굴의 용기, 빛나는 발상력의 기록

**Part 1 멈출 수 없는 도전**

- 01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시대의 ‘이단아’
- 02 ‘바퀴 달고’ 세계를 누비는 국산 자동차의 열정과 내일
- 03 국가의 명운을 걸고 뛰어든 뜨거운 열사의 땅 중동 건설시장
- 04 한국인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전시장 조선소
- 05 40년 숙원 고로에 불을 당긴 현대 제철
- 06 가슴에 묻고 간 필생의 염원 통일
- 07 중국, 가깝고도 멀 수밖에 없는 나라
- 08 국제무대 등단의 무대 전경련 회장직

**Part 2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놓은 다리들**

- 01 경제성장을 위해 절실했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건설
- 02 자동차 독자개발을 놓고 벌인 미국과의 비밀 담판
- 03 모두 안 된다던 조선소 발상,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기록
- 04 석유파동으로 빈사 상태가 된 한국경제를 구한 기상천외한 발상, 중동 건설 진출
- 05 88서울올림픽 유지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천하에 오직 한 사람

**Part 3 그의 정신, 그의 기상**

- 01 통일에 대한 갈망과 집념은 그에게 하나의 신앙이었다
- 02 정치쇄신, 더 잘사는 사회... 통일을 위해 던졌던 비장한 출사표
- 03 평생 노동자의 가슴을 품고 살았던 ‘성공한 노동자’
- 04 돈 액수의 자릿수보다 쓰임 가치를 찾았던 ‘큰손’과 ‘구두쇠’
- 05 앞서는 비결, 남다르게 생각하고 남다르게 행동해야
- 06 피터 드러커 Peter Drucker 교수가 본 정주영
- 07 세기의 도전자, 위기의 승부사

**Part 4 인간 정주영**

- 01 정주영 · 이병철, 갈등과 아름다운 화해
- 02 만능 엔터테이너 재벌 총수의 18년
- 03 건강관리 비법과 아킬레스의 건
- 04 단순화와 직관력의 달인